

## 여권 발급 지연에 민원인 불만 폭발



▲ 미국인의 여권 발급 신청 급증에 전담 직원 부족 등으로 여권 발급에 수개월이 걸린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을 발급받는 데 수개월이 걸려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4일 '연합뉴스'가 AP통신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올해 접수한 여권 발급 신청이 역대 최대인 한주에 50만건에 달하면서 작년 한 해에 발급한 2천200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권 업무를 처리할 직원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 절차가 지연되면서 여행 계획을 세운 미국인들이 출국일 며칠 전까지 발을 동동 구르거나 최악의 경우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여권 발급이 늦어지는 이유로 코로나19를 지목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지난 3월 23일 하원 청문회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여행 수요가 사라지자 여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다른 업무로 돌리고 외부업체와 계약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으로 여권을 갱신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동안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외국을 방문하는 미국인이 증가한 것도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이유다. 여행 수요가 늘면서 1989년 미국인 100명 중 3명에 불과했던 여권 소지자는 2022년 100명당 46명으로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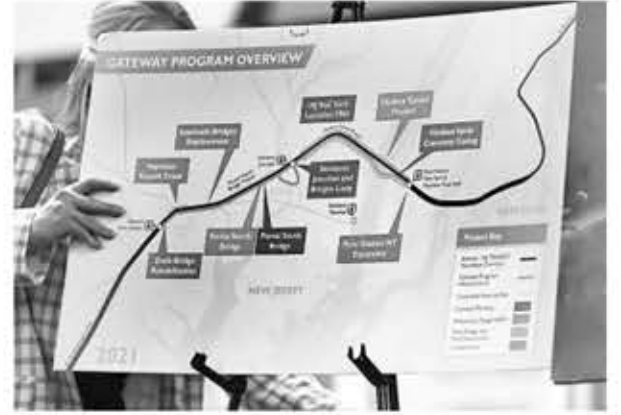
## 연방정부, 뉴욕 새 터널 건설에 '역대 최고액' 지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뉴욕 허드슨강에 건설되는 새 터널에 역대 최고액인 68억8천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허드슨강의 터널은 미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좁히는 뉴욕과 뉴저지주 사이에 놓인다. '게이트웨이'로 명명된 이 터널은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열차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허드슨강을 지나는 열차는 노스 리버 터널을 사용하고 있지만, 113년 전인 1910년에 완공된 낡은 터널이기 때문에 1시간에 24대의 열차의 통행만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12년 침수 사고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새 터널 건설 비용은 1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뉴저지는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건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뉴욕과 뉴저지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건설 예산의 절반까지 추가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허드슨강 밑에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 뉴욕 허드슨강 터널 건설 계획 기자 회견을 위해 관계자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포스터 보드를 준비중이다. 사진=AFP연합뉴스

2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뉴욕주 정부는 터널 건설로 혜택을 보는 것은 뉴욕에서 일하는 뉴저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뉴저지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에도 비슷한 터널을 만들겠다고 해서 착공까지 했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 뉴저지주가 공사를 중단시켰다.

## “수돗물 절반가량 발암물질에 오염”

미국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미 지질조사국(USGS)이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미국의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5%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 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의류, 생활용품, 식품에서 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된다.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never chemicals)'로 불리기도 한다.



▲ 미국 전역의 45% 지역 수돗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사진=shutterstock

오염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대호 및 동부 해안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9년 연구 결과에서는 미국 인구의 98%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과불화화합물이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은 보도했다.

이스트 캐롤라이나대 제이미 듀잇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과불화화합물은 사실상 어느 곳에나 있다.”며 “사람들이 이번 결과에 겁을 먹

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수돗물에 정수 필터를 설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일 수 있다고 CNN은 소개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